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연구

- 부산·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tribution of Public Library of Korea Open-port City to Local Development: Focused on Cases at Busan and Incheon City

윤 희 윤 (Hee-Yoon Yoon)*

김 경희 (Gyoung Hee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3.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분석 |
| 2.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사례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기억은 과거보다 미래를 위한 정신적 활동이고, 기억을 복원·재생해야 할 책임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이 사회와 동행하려면 기억을 복원하고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지역발전 기여 사례를 배경정보와 문헌·사례 연구, 현장조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개항도시 부산·인천 공공도서관의 지역경제 발전,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기여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그럼에도 경제적, 문화적, 지역공동체 형성의 측면에서 지역발전 기여도는 완전체가 될 수 없다. 도서관 자체의 역사자리 및 건축예술 측면, 지역주민의 인식 및 이용가치 측면을 반영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Memory is a mental activity for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st, and the responsibility for restoring the memory rests on the current intellectuals. In this context, the library must demonstrate how it contributes to local development by restoring memory and analyzing social roles and functions. Based on the contributions of local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as background information and through literature · case studies,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This study has logically demonstrated local development to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regenerating and promoting local culture, and forming a community in the open-port cities of Busan and Incheon. Nevertheless, the contribution of local development in terms of economic, cultural and community formation cannot be perfect. Subsequent research that reflects the historical geography and architectural arts of the library itself, and the perception and value of use of local residents is necessary.

키워드: 공공도서관, 지역발전, 개항도시, 부산시, 인천시

Public library, Local development, Open-port city, Busan city, Incheon city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제1저자)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smo1596@hanmail.net / ISNI 0000 0004 7641 648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9년 10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2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51-71,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051>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조선 왕조 500년 후반은 근대의 가을에 해당한다. 그 막바지에 일제치하라는 냉혹한 겨울이 엄습하여 긴 동면에 들어갔다. 서양 제국이 근대 민주주의와 발전의 토대를 비축할 때 한국사회는 봉인되었고 한국인에게는 죽어가 채워졌다. 그것이 1900년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전개된 동토의 풍경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복원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 지식문화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 복기해야 할 숙명적 과제 중의 하나가 개항도시 도서관의 흔적과 역사다. 기억은 과거보다 미래를 위한 정신적 활동이고, 기억을 재생해야 할 책임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에 있다. 망각은 왜곡과 파멸을 초래하는 반면에 기억과 복원은 미래를 구원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역사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역사이기에 한국 최초 공공도서관은 일제 강압으로 문호가 개방된 개항도시 부산에 출현했다는 것이다. 일본홍도회 부산지회의 홍도도서실(弘道圖書室) 또는 홍도문고(弘道文庫)가 그것이다. 또 다른 개항도시 인천은 서양 제국주의 각축장이었고, 그 곳에 설립된 인천 공공도서관 원형이 인천문고(仁川文庫)다. 양대 개항장과 공공도서관에는 역사적 기억과 흔적이 많다. 그러기에 복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공공도서관과 지역발전의 상관성을 논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공공도서관의 배후적 공간은 지역사회이고, 장소적 상징은 문화·학습시설이며, 서비스 대상은 지역주민이고, 배타적 정체성을 정당

화하는 요체는 책 중심의 방대한 지식정보이다.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 산실, 시민의 대학,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식정보센터, 평생학습 거점, 사회적 장소로 진화하는 중이다.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면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로 수렴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복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변용과 진화를 거듭해야 지역사회와 동행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공공도서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주요 사례를 배경정보로 삼아 개항도시 부산 및 인천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를 논증하고자 한다. 부언하면 양대 도시에서 개항과 관련된 장서개발과 장서구성을 특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분석하는 동시에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여전략을 추가함으로써 기억과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른 공공도서관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한계

본 연구의 방법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중요성 및 역할, 지역발전 기여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학술서, 학술논문, 보고서, 사례발표 자료집, 통계데이터, 인터넷정보자원, 웹사이트 등 문헌조사방식을 적용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사례는 국내외 자료(도서관문화, 세계도서관기행, 문화를 통한 도심 활력 만들기 사례집, 세계도시문화리포트 등)와 타 학문(건축학과, 도시공학과, 실내디자인학과, 미술사학과, 문화경영 및 관광

등)에서 수행되어 개항도시 부산 및 인천의 공공도서관 연구와 관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사례는 부산과 인천으로 제한하여 조사·분석 한다.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는 양자가 일제의 강제 불평등 조약에 따른 개항장이자 근대도서관이 태동한 항구도시이기 때문이다. 더 좁히면 양대 도시의 공공도서관 중 근대사 자료를 특성화하여 역사문화적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 중앙도서관’과 ‘인천 화도진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기여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양대 도시의 도서관 방문, 신문자료, 일제 치하의 관보와 통계 등을 통하여 개항 당시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화 인터뷰, 홈페이지 분석, 웹사이트 추적, 정보공개 요청 등의 방식으로 보완한다. 그럼에도 1세기 전의 역사적 사실, 사진자료, 각종 문서를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록에는 존재 하지만 원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일치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자료 발굴을 전제로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논증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1.3 선행연구 개관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서비스, 문화 및 평생학습 제공, 제3의 사회적 장소로서의 역할 등을 통해 지역발전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공도서관과 지역발전의 상관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발전의 경우, 윤희윤(2015, 1-20)은 공공도서관과 지역문화의 상의성을 밝힌 후, 지

역문화발전 기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윤희윤과 김경희(2019, 29-48)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지역발전 기여도를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경우, 차미경(2003, 159-171)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의 필요성과 영역, 사례 및 내용, 계획과정을 제시하였다. 그 외 공공도서관의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지불의사액 조사(이정호 2011), 경제성장 요소인 국내총생산(GDP), 실업, 교육, 건강, 저축과 공공도서관 이용의 상관성을 규명한 연구(Stilwell 2015, 26-33)도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연구로는 영국 도서관의 커뮤니티 기반 공공성 구현(신승수 외 2009, 259-268), 도시적 맥락 속에서 정독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북촌의 관계회복 방안(윤영섭 2012),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런던 타워햄릿 자치구 아이디어 스토어 연구(허준영, 김용승 2015, 451-452)가 있다. 그 외에 도시재생 기법 도입(양재영, 김동훈 2016, 151-154)과 도시 기억의 기록화(여진원, 장우권 2016, 387-416),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도서관 연구(Rasmussen et al. 2010, 1-18; 문은미 2017, 143-151)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경제 발전, 도시문화 재생, 지역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왔음을 주장하거나 기여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면 통계적 접근이나 정책적 제안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기여 사례를 논증하면 지역의 문화적 발전, 경제적 풍요, 공동체 가치를 진작시키는데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다.

2.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사례

모든 공공도서관은 민주주의 산실, 시민의 대학, 교감과 소통을 촉진하는 사회적 장소, 지적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존재이유를 정당화하고 포괄적 의미의 지역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를 지리적 및 공간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광장(아고라)과 지역을 대표하는 아이콘,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재생,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지역문화 전작,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으로 나누어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1 민주주의 광장과 아이콘

지구촌 도서관 중 도심 광장에 위치하면서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는 사례는 많다. 그 하나가 공론화와 민주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는 민주주의 광장이라면, 다른 하나는 책이 도서관의 브랜드이듯이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아이콘이다.

먼저 공공도서관이 민주주의 광장임을 대표하는 사례로는 영국 노포크-노리치(Norfolk and Norwixh)의 밀레니엄도서관(Millennium Library)과 서울도서관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영국이 국가적 위상을 과시하기 위하여 추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포크주와 노리치시가 협업하여 도서관, 도시 랜드마크인 세인트 피터 맨크로프트 교회(St. Peter Mancroft Church), 시청의 동서남북 보행 축을 도서관 전면의 광장인 '더 포럼'(The Forum)에서 만나도록 구성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었다.

더 포럼은 각종 행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명소이다. 후자는 수도 서울의 중심축인 '서울광장'에 위치하는 근대 건축물로서 조선 600년 도읍지의 역사문화 자산과 인접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집회와 의견 표출, 소통과 대화 등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사례는 덴마크 헬싱고르 도서관(Helsingør Library)과 오산시 6개동의 '테마도서관'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크론보르성(Kronborg Castle)과 햄릿의 스토리 등으로 과거와 현재를 결합하여 해양문화를 상징하는 항해와 뚝대로 외관을 표현하였다. 후자는 오산시가 6개동 주민에게 1.5km내에서 어느 도서관이든 접근할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3년부터 2년간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책과 문화·사람이 어우러진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청학도서관,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핫살마루도서관, 권을장군의 지혜를 배우는 역사배움터인 양산도서관, 온가족을 위한 초평도서관, 마지막으로 구축한 꿈두레도서관이다. 특히 꿈두레도서관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책을 펼쳐 놓은 모습으로, 별과 달을 보며 책을 읽고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독서캠퍼장을 갖추었다.

2.2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재생 활력

먼저 공공도서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퀘벡의 가브리엘-로이 도서관(Bibliotheque Gabrielle-

Roy)과 세종도서관을 들 수 있다. 1534년 프랑스 탐험가 카르티(J. Cartier)가 발견한 퀘벡은 프랑스계 주민이 많고 프랑스 전통이 강해 ‘작은 파리’로도 불린다. 1983년 치안이 불안하고 침체된 퀘벡시 중심에 가브리엘-로이 도서관을 개관한데 이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좋은 도시 방문지’로 선정되면서 관광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에도 퀘벡이 등장해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 주목받았다.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 및 출연연구기관에 정책정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 옥상 정원,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 축제섬, 모래 해변이 있는 물놀이섬, 수생식물이 자라는 물꽃섬, 습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습지섬, 자전거도로 등은 국내외 탐방객을 유인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에 세계적 웹진인 「디자인 봄」(Designboom)의 ‘올해 도서관 톱 10’, 레드닷 디자인상(Reddot Design Award)의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건축 매거진 「Homedit」의 ‘세계적인 현대 건축 도서관 12’ 등에 선정되거나 수상하여 지역발전과 관광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이 도시재생 활력에 기여한 사례로는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Amsterdam Central Library)과 포항 포은중앙도서관이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은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주변에 암스테르담 박물관, 반 고흐 미술관, 콘서트홀 등이 있다. 그럼에도 항구 쇠락, 하이네켄 양조장 폐쇄 등으로 쇠락하던 지역을 살리기 위해 중앙도서관을 공공시설과 연계한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삼아 소통 및 창조공간으로 부활하고 있

다. 포항은 대표적 학자인 정몽주선생을 비롯한 학문적 뿌리가 깊은 고장으로, 포은중앙도서관이 2007년 5월 포항의 쇼핑 및 문화 1번지였던 구도심 시청사를 재활용한 포은도서관으로 개관하여 6년간 사용하다가 201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재개관하였다. 그 후 사람, 문화, 도시를 위한 품는 둑지로 변신하여 도시 재생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3 지역문화 진작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 진작에 기여한 사례로는 미국 보스턴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과 파주 교하도서관을 들 수 있다. 1630년 영국 청교도가 최초로 도착한 매사추세츠주는 차량 번호판을 ‘The Spirit of America’로 표시할 정도로 미국적 정체성이 강한 도시다. 보스턴에는 하버드, MIT 등 지구촌 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이 있으며, 보스턴공공도서관은 르네상스 문화와 건축으로 강력한 미국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아메리칸 르네상스(American Renaissance)’ 벽화는 미국 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유럽 활동 미술가들이 제작한 작품으로 미국이 유럽과 르네상스 문화의 정통성을 전승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데 충분하다. 그 뿐만 아니라 벽화를 통해 미국 정체성을 시각화함으로써 이민 시기의 국가 이념, 도덕과 애국심 등 시민들을 계몽·동화시키는 역할도 한다(이미경 2014, 140). 파주 교하도서관은 꾸준한 독서진흥사업 및 도서관 정책을 통하여 ‘책 읽고 글 쓰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2015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1999년부터 10년간 '자녀를 위한 어머니 독서교실' 운영과 학습자 역량 축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였고, 2010년에는 출판도시로서의 도서관 사업, 군부대가 많은 지역에서의 도서관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기반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2.4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

먼저 공공도서관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는 영국 런던 타워 햄릿(Tower Hamlets)의 아이디어 스토어(Idea Store)와 순천 기적의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워 햄릿은 저소득 균로자와 이민자가 많고 쇠락하던 지역이었다. 이를 개선할 의도로 기존 도서관을 매각하는 대신에 일상적 공간(길거리 시장, 대형 슈퍼마켓 등)과 연결한 아이디어 스토어를 신축하고 이민자 문화교육, 지역민 취업정보 제공,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800여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각의 상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었다. 순천 기적의도서관은 2003년도 MBC 「느낌표」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된 '기적의도서관프로젝트'의 제1호관으로 탄생한 자연 및 주민 친화적인 어린이도서관이다. 도서관장 결정과 운영시스템에 주민 참여를 허용하고, 창의적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소외지역 주민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서관학교'와 '어린이사서제도'는 어린이와 부모가 이용주체로 성장하고 다시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 가정 독서지도사, 마을 도서관 운영자 등 지역활동가로 영역을 넓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례 중에는 큐슈 미야자키현(宮崎縣)의 키조그림책마을(木城えほんの郷) 숲속 야외도서관과 서울 정독도서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울창한 산림 속의 키조그림책마을은 인구 감소, 초등학교 폐교 등으로 침체되자 1996년 숲속 야외도서관을 건립하고 그림책 16,000여권을 갖춘 테마마을로 발전시켰다. 연간 방문객이 주민의 6배가 넘는 3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로 주민의 독서활동 증가, 마을공동체 형성,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정독도서관은 조선 600년 도읍지의 북촌이라는 역사문화적 장소에 위치하면서 커뮤니티 시설, 주변 상권과 연계된 지역의 산책로, 휴식처, 쉼터로 각광받고 있다. 관내 역사적 상징물을 활용한 '정독도서관 산책', 서울YMCA, 종로노인복지관, 북촌생활사박물관이 함께 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인 'Book村에서 함께하는 일삼세대 모꼬지'와 'Book村 일삼하모니와 함께하는 북촌생활체험 한마당', 청소년 독서논술교육인 '북촌 청소년 로고스', 소통공간인 '느낌의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과 소통·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3.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분석

3.1 도서관의 역사와 역할

조선왕조 말기인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일명 江華島條約)가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제5조(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

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해야 한다)에 따라 부산, 인천, 원산이 항구를 개방함으로써 한국 근대사의 기점이 되었다. 개항은 한반도 위상이 중화세계로부터 지구촌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고,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로의 진입이며, 농경사회에서 상공업사회의 변화를 함축한다. 다른 각 도에서 보면 부산과 인천의 개항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호탄이자 망국의 서막이었다.

부산의 경우, 1407년부터 일본과 선린외교의 장이었다. 그런데 개항과 동시에 일제의 경제적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근대 신문물의 유입과 유행을 선도하는 항구도시로 변모해 갔다. 1901년 천황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주창한 근대 유학단체인 ‘일본홍도회 부산지회’(회장 荒浪平治郎, 1895-1909년 개성학교 교장. 부산상고를 거쳐 현재는 개성고등학교)가 ‘홍도문고’(弘道文庫)를 설립하였다. 1903년에는 저희 사무소를 개축해 ‘부산도서관’으로 칭하였고, 1911년 부산교육회에 도서관을 승계하였다. 1911년 11월 <표 1> 중 용두산 194계단 옆에 신관을 건축하여 1912년 6월에 개관하였고(足立四郎吉 1906, 21: 釜山甲寅會 1916, 177-179), 1919년부터는 부산부가 부산교육회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까지 용두산공원과 부산역 일대는 해방 귀환동포와 피란민이 모여들어 화재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결국 한국전쟁 때 화재로 전소되었으며, 지금은 그 흔적만 간직한 채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개항 전까지의 인천(제물포)은 70여 명이 거주한 어촌이었으나 개항과 동시에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제국주의의 각축장이 되었다. 1910년 경성에서 결성된 인천기독

청년회(회장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장 판사 大谷信夫)가 1911년 본정 3정목에 ‘인천문고’를 설립하였다. 1913년에는 산수정 3정목에 다시 신관을 건립하여 1931년 4월까지 인천기독청년회 자체를 위한 사회교육 및 체육시설로 활용하였다. 1921년 인천부는 러시아 건축기술자 사바틴(A.I. Seredin-Sabatin)이 각국공원(만국공원, 현 자유공원)에 건축한 독일 무역회사 세창양행 사옥이 독일의 폐전으로 적산가옥으로 바뀐 후 청광각(淸光閣)으로 이용하다가 그 일부를 ‘인천도서관’으로 설립하였다. 1941년 도서관이 이전된 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소실되었다. 지금은 맥아더 동상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개항도시의 근대사, 지역문화사, 도서관과 관련된 지식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보존하는 곳이 <표 2>와 같이 부산 중구의 중앙도서관과 인천 동구의 화도진도서관이다. 양대 도서관이 오랫동안 집적한 근대 개항자료는 ‘지역 지식정보의 보고’이자 은둔의 과거사 및 시대상을 담은 ‘이야기 주머니’이다. 그것이 도서관을 통하여 부활하고 회자될 때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착, 정주성이 높아지고 도서관 지지자가 되며, 역으로 도서관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3.2 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분석

개항도시인 부산 중앙도서관과 인천 화도진도서관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지역경제 발전,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나누어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개항도시 부산과 인천의 근대도서관



〈표 2〉 개항도시 도서관 역사 및 분석 대상

도시	시기	개항장소	개항도시의 최초 도서관	분석대상	
				도서관(개관일)	선정이유
부산	1876	부산포 초량항 (현재 중구)	1901. 10. 홍도문고 (일본홍도회 부산지회)	중구 중앙 (1990. 4. 28.)	부산시 교육청 향토자료 특성화 (1998. 12. 30. 향토자료실 개설)
인천	1883	제물포 (현재 중구)	1911. 4. 인천문고 (인천기독청년회)	동구 화도진 (1988. 10. 20.)	2000년 문화관광부 개항자료 특화도서관 지정 (1999. 1. 1. 향토자료실 개설)

〈표 3〉 부산 중앙도서관과 인천 화도진도서관의 주요 현황

분석대상	직원 (사서)	장서(권)		시설(m ²)	서비스지역	
		도서 (비도서)	향토 자료		인구수 (6월말)	공공(작은) 도서관수
부산 중앙도서관(본관)	33(13)	299,477 (13,835)	5,544	부지 22,466m ² 건물 6,172m ² 지하2층, 지상4층, 별관	44,474	0(6)
인천 화도진도서관	32(11)	213,703 (24,774)	9,276	부지 2,012m ² 건물 3,604.9m ² 지하1층, 지상3층	64,998	1(11)

3.2.1 지역경제 발전

도서관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가. 지역에 도서관이 설립되면 직원 채용에 따른 직접적 고용효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강사 활용, 자료구입에 따른 서점 등의 매출 증가, 이용자 및 방문자 증가로 인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매출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 외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에서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의 경우, 부산 중앙도서관은 지역 출신(출생, 거주) 저자를 중심으로 2016년 5-7월에 12차시에 걸쳐 ‘부산학아카데미’를

〈표 4〉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

부산 중앙도서관	인천 화도진도서관	기여유형	기여내용
• 지역출신 저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및 원도심문화네트워크기관 강사 활용	• 저자 · 출판계 협력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경제 활력	지역 저자 · 출판계 · 기관과의 제휴
• 2014-2018 평생학습프로그램 계속 참여를 통한 학습자 역량강화로 자유학기제 ‘청소년, 꿈찾기 원도심 기행’ 역사진로해설가, 백산 안희제 관련프로그램 진행자 등 지역형 일자리 창출	•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그림책작가로 활동 • 저자 강의로 저명작가로 인지도 확장 • 출판사 창업	도서관 기반 지역형 일자리 창출	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용문
• 자유학기제 ‘청소년, 꿈찾기 원도심 기행’ 운영으로 도서관 · 원도심 방문	• 향토 · 개항문화자료관 운영으로 인천개항장 관광 활력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주민 및 타지인 방문

진행함으로써 저자들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였다. 또 민주공원 관장, 부산세관장, 원도심문화 예술지대 또따또가의 예술가,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보수동체방골목 단체 등 원도심문화네트워크 기관 대표를 강사로 활용하였다.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SNS를 통해 지역출판사의 신간 정보를 알려주어 도서관 이용자 및 관련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고, 신간을 활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기반 지역형 일자리 창출의 경우, 부산 중앙도서관은 '중구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역사문화를 해설할 수 있는 학습자를 배출하였다. 1기 수료자들은 2015년부터 중앙도서관의 '자유학기제프로그램 강사', 2014년부터 중구청 '40계단문화관'에서 '청소년역사진로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2기 수료자들은 2018부터 중구청에서 '백산 안희제 관련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 부산시·부산문화재단·중구생활문화연합회 4월 '공감축제'에서 '지역문화 안내자', 2017년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2019년 5월 조선통신사 재현 축제에서 '체험해설사' 등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인천 화도진도서관에서는 그림책 관련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그림책작가'로 활동하거나 저자 강의를 통해 인지도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 창업에도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의 경우, 부산 중앙도서관은 '중구문화해설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학습자들이 2015-2018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도서관 및 원도심을 탐방을 활성화하였다. 특히 2018년 5월 3일 기장중학교 1학년 190명과 인솔교사 8명이 차량 7대로 도서

관 및 원도심(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을 탐방하였다(윤희윤, 김경희 2019, 40-41). 그런가 하면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1999년 '향토자료실' 개설과 2000년 문화관광부 '개항자료 특화도서관' 지정을 계기로 장서를 특성화하여 2007년 '개항자료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 다른 시도의 기관·단체, 유치원·유아원, 학교, 국내외 지역연구자, 전국 도서관 및 사서, 학계 및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견학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개항자료전시관'은 벤치마킹을 위한 내방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힘을 불어넣고 있다.

3.2.2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

도서관은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표 5>에 요약한 바와 같이 향토자료 특성화 및 지역자료 출판을 통한 지식문화 확산, 지역연구 지원, 도시재생 활력으로 가늠할 수 있다.

먼저 향토자료 특성화 및 지역자료 출판의 경우, 부산 중앙도서관은 1998년 2월 부산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향토자료(현재 부산자료)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정된 후 <표 6>과 같이 도서 5,500권 이상과 1875년부터 1990년대 부산근·현대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사진, 지역 1세대 사진작가 최민식의 사진 등을 수집하였고, <표 7>에 간추린 것처럼 '내사랑부산자료모음집' 총 16권을 발간하였다. 또한 부산시가 피란·평화도시로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과 관련한 도서목록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도서 9,200

〈표 5〉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 기여

부산 중앙도서관	인천 화도진도서관	기여유형	기여내용
• 한국전쟁자료목록 구축 • 내사랑부산자료모음집 16권 출판	• 개항자료목록 구축 • 개항자료(목록)집·도록 출판	지식문화 확산	장서특성화 및 지역 관련 지식정보 출판
• 부산학아카데미 I~IV (2016-18)	• 인천학시민강좌(2009, 2011, 2016-18)	지역연구 지원	지역학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 강좌 운영(보수동책방골 목 연계 책마을만들기 등) • 또따또가와 함께하는 부산문화예술의 오감도(五感道)	• 인천개항장 도시재생사업에 개항 및 인천 관련 전시자료 제공	도시재생 활력	마을에 대한 계몽, 커뮤니티 활동

〈표 6〉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 특성화’ 현황(2019. 6월말 기준)

도서관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부산 중앙	190	2	17	2,077	89	393	463	13	458	1,842	5,544
인천 화도진	813	78	175	3,175	56	219	499	20	943	3,298	9,276

〈표 7〉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발간자료’ 현황(1999-2017)

연도	부산 중앙도서관(내사랑부산자료모음집)	인천 화도진도서관
1999-2000	1호(부산의 위치, 기후, 상징, 역사 등), 2호(부산의 지명 유래, 동명 유래)	-
2001-2002	3호(부산의 상징물과 자연), 4호(부산의 문화재(I))	-
2003	5호(부산의 문화재(II))	사진으로 보는 인천 한 세기
2004	6호(부산의 축제)	-
2005	7호(역사 속의 부산 인물들)	인천 향토자료 목차집-역사편
2006-2007	8호(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 9호(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
2008	-	화도진도서관 향토자료 소장 목록집
2009	-	1960년대 인천풍경(최성연 선생 기증 사진집)
2010	-	-
2011-2016	10호(근대 부산 100년), 11호(부산근대지도 모음집), 12호(한 권으로 정리한 부산시·부산교육 연표), 13호(부산의 밥상 ‘가정에서 이어오는 맛’), 14호(사진으로 보는 부산의 근대건축), 15호(사진과 신문으로 보는 피란수도 부산 1023)	-
2017	16호(2017 부산의 전시공간), 이후 사업 종료	인천 화도진도서관 소장 향토·개항자료 도록

권 이상과과 비도서 1,600여점을 수집·소장하고 있고, 개항기 원본자료(사진, 엽서, 실물자료, 지도 등)를 한 곳에 모아 근대 역사와 문화

를 볼 수 있도록 상설 전시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박물관에 향토·개항자료의 실물대여 및 이미지 자료 제공, 『인천부사』, 『인

천시사』, 『인천개항 100년사』 등 고서 32권의 원문DB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관 30주년을 맞아 수집한 원본 자료 1,600여점과 도서 9,500 여권 중 인천시립박물관장, 소설가, 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위원, 「굿모닝인천」 편집장, 인천시립박물관 학예관 5명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해제한 『인천 화도진도서관 소장 항토·개항자료 도록』을 발간하였다. 이처럼 양대 도서관은 지역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고, 소장자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자료 발굴·수집과 보존·활용을 통하여 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과 역할인 지식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연구 지원의 경우, 양대 도서관이 기여한 사례는 <표 8>과 같다. 부산 중앙도서관은 2016-2018년에 진행된 ‘부산학 아카데미 I - IV’를 통해 2016년은 지역저자·개항 140주년, 2017-2018년은 ‘부산학, 부산의 미래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운영하였다. 2018년은 부산학프로그램 최적화 및 학문적 체계의 기초와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서, 부산 지역학 1세대인 신라대학교 무역경제학 교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도서관문화 콘텐츠 기획·개발 전문가 5명으로 ‘부산학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지역 최초로 부산학 민·관·학 공론장도 마련하였다. 한편,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2009년 ‘인천학 시민강좌’를 개설하였고 2011년 ‘인천, 영화로 읽다(2차시)’ 후 단절되었다가 2016년 ‘열려있는 땅, 인천’으로 재개해 2017년 ‘인천의 시간과 공간을 담은 여

섯 가지 이야기’와 ‘한국과 중국의 가교, 인천’을, 2018년 ‘인천 섬의 인문·자연자리’와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인천학 특별강좌: 인천의 근대 시간과 공간의 축’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력의 경우, <표 9>와 같이 부산 중앙도서관은 2015년에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였고, 도시재생 주체인 지역주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 연구, 자유학기제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지역 이해 및 지식정보 전승하는 지역활동가로 성장시켰다. 2018년 10월에는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마을교육, 공감과 회복을 품다’ 강의 등으로 교육대상을 세분·확장하였다. 특히 부산 원도심(구도심)에 위치하면서 초량왜관, 첫 개항지, 전관거류지, 임시수도 등의 역사문화적 결을 간직한 중앙도서관은 지역문화를 재생하고자 2014-15년 ‘중구 문화해설사 양성과정’(기초·심화·전문, 총 50 차시)을 운영하여 지역의 역사문화를 전승·해설할 수 있는 학습자를 지역전문가로 배출하였고, 2015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문화예술단체인 ‘또따또가’¹⁾와 도서관·동호회(도서관 학습자동아리 ‘부산원도심세르파’)가 협업하는 「또따또가와 함께하는 부산문화예술의 오감도(五感道)」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동호회나 지역기관 구성원에게 해설·체험을 통한 지역문화를 재생·확산시켰다(김경희 2015, 20). 한편, 인천 화도진도서관도 인천시가 중구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항장을 재현하면서 건립한 박물관, 전시관 등

1) ‘또따또가’는 관용, 배려, 문화적 다양성을 뜻하는 프랑스어 틀레랑스(Tolerance)의 ‘또’와 ‘따’로 활동하지만 ‘또’ 같이 활동하는 의미와 거리나 지역의 ‘가(街)’의 합성어이다.

〈표 8〉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학프로그램’ 운영사례

연도	부산 중앙도서관(부산학아카데미)	인천 화도진도서관(인천학 시민강좌)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학, 길위에서 만나다 • 부산에 대한 창의적 시선 • 5가지 키워드: 부산의 오늘을 묻고 내일을 같다 • 사람을 품다. 이야기를 담다 • (옛사진으로 답사하는)근대 부산 100년 • (마을에서 미래를 보다) 중산마을이야기 • 마이너리티, 또 다른 부산의 힘 • 창조도시 부산을 꿈꾸다 • 부산 원도심은 페스트리다 • 사진으로 보는 부산의 근대건축 • 초량왜관-세계도시 부산은 초량왜관에서 탄생했다 • 도시, 혁음을 꿈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개항과 인천의 도시발전 • 사라진 인천의 근대 건축 • 인천의 근대적 택배사업·우정사업 •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 산업화시절의 인천이야기 “시간을 깨우다” • 인천인물사 - 죽산 조봉암 • 부평캠프마켓 - 한국현대사의 그늘 • 영화로 보는 인천 • 인천크로키 - 자화상 없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과 부산 •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부산의 정체성 • 부산경제의 현재와 과제 • 세계화와 부산의 미래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 (그림과 함께 보는)부산의 역사와 문화터 • 부산 도시 변천사(재생의 미래) • 부산의 문화 정체성과 정치 •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의 부산 • 부산학, 부산의 미래를 상상하다 • 부산, 사람 - (부산의) 꾼·챙이 • 세계 도시 브랜드 경쟁력과 부산 • 부산, 그때 그 자리 - 문화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을 이기는 힘, 인천의 오래된 가게 • 은막에 새겨진 삶, 인천의 영화 • 흔들리는 생명의 땅, 인천의 섬 •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인천의 다방 • 질주하는 인천 철도의 역사 • 야구의 시작, 인천의 야구이야기 • 인천의 미래비전과 문화산업 • 인천에서 닦이 울면 웨이하이에서 들릴까? • 철도를 타고 흐르는 역사이야기 • 관우와 달마의 위험한 동거 • 인천 최고의 거부 오래당의 따분한 하루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의 관점 통계로 보는 부산, 부산사람 • 부산, 정체성을 밝히다 • 개항과 부산, 그리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 • 부산의 변모와 부산학 • 부산의 문화적 특이성으로 상상하는 부산의 미래 • 도시의 기억, 기록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 부산학, 현재와 미래를 잇는 대화 • 부산학(30년)을 반추하다, 내년을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동읍성과 삼도수군통어영(교동도) • 삼보, 삼비의 섬과 안강망(덕적도) • 제비우물과 구황비의 섬(장봉도) • 굴업도 민어파시와 임시도시(굴업도) • 인천 섬의 자연환경과 생태 • 인천 섬의 지질 특성과 자연유산 • 인천 섬을 찾아오는 조류들 • 인천 섬의 식생상과 특이식물 • 개관 30주년 특별강좌 • 인천의 근대도시 공간과 건축 • 화교가 없는 나라 • 한반도 화교사

〈표 9〉 부산 중앙도서관의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마을만들기와 通하다) 사례

차시	교육내용	담당강사	방법	장 소
1	도시의 브라운 운동 1. 마을 만들기와 브라운 운동	나락한알 부원장	강의	중앙도서관
2	마을과 通하기 1. 원도심 축제 ① 우키시마 마루호와 원도심 기행	"	강의 탐방	수미르공원
3	마을과 通하기 2. 원도심 축제 ② 부산포이야기	"	강의	부산포
4	도시의 브라운 운동 2. 원도심의 문화 네트워크 사업과 전략	민주공원 관장	강의	중앙도서관
5	도시의 브라운 운동 3. 부산의 도시재생 운동과 중구의 전략	부산발전연구원	강의	부산발전연구원
6	중구를 페다 1. 중구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강의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
7	중구를 페다 2. 원도심 또따또가	또따또가 센터장	강의, 탐방	보기드문(또따또가)
8	중구를 페다 3. 문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이후의 중구와 미래	소설가	강의	중앙도서관
9	중구를 탐색하다 1. 목표와 탐색 전략, 지표 설정	민주공원 관장	강의	중앙도서관
10	중구를 탐색하다 2. 지표 조사 ①	"	실습	중앙도서관
11	중구를 탐색하다 3. 지표 조사 ②	"	실습	중앙도서관
12	지표 조사 워크샵	"	강의	중앙도서관
13	마을만들기 1. 사례로 보는 마을 만들기	부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강의	금수현음악살롱
14	마을만들기 2. 책마을만들기 (보수동책방골목부터 중앙도서관까지)	중구민간협의체 활동가	강의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15	워크샵, 평가	민주공원 관장 외	강의 토론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에 도서관이 수집한 개항과 인천 관련 자료를 다양한 매체로 제공해왔다. 2019년 5월-10월에는 도시재생의 바탕인 건축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프로그램인 '건축이야기 15'를 운영하고 있다.

3.2.3 지역공동체 형성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례는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 지역기관 협력(협업) 확대'로 확인할 수 있다. 개항도시의 양대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례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은 상대에 대한 의심과 경계에서 벗어나 교류, 갈등의 순화 등 긍정적 행위를 유발하여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며, 그 결과는 개인과 단체의 봉사, 재능기부, 기증 등으로 이어진다. 부산 중앙도서관은 2014-2018년에 지역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부산민학회,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초량왜관 연구회 등에서 기증²⁾한 도서를 지역관련 프로그램 참가자 중에서 추첨하여 증정하였다. 또한 2017-2018년 지역전문가 4명이 재능기부를

2) 2019년 3월, 부산학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해 2017-2018년 부산학운영협의회 구성원이었던 신라대학교 김교수가 일본 메이지시대 문화변천사, 부산향토자료 등 도서 730여점을 기증하였다.

〈표 10〉 개항도시 공공도서관의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

부산 중앙도서관	인천 화도진도서관	기여유형	기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단체 기증(부산민학회, 신라대학 교부산학센터, 초량왜관연구회 등) 재능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성연 향토자료 2,600여점 등 기증 저작권 기증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	기증 및 재능기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공간 제공으로 친숙성 증대 부산학프로그램 최적화 및 학문적 체계화 기초 마련을 위한 ‘부산학운영협의회’ 구성·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를 통한 도서관 홍보 및 지역사회와 소통 향토역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연구회 구성 	소통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조성	공론장 마련 및 지역전문가 인력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심문화네트워크 외연 확장 및 원도심 축전(2014-18, 5-6월 경) 2017 40계단문화관 ‘육이오 한국전쟁 특별전시’ 참여(한국전쟁 관련도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연구기관 및 학술연구 단체 등과 자료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활동과 교류 2018 공동기획전 ‘자료로 본 인천의 근현대’(개항 특화 수집자료 제공) 	지역기관 간 협력(협업) 확대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전시·축제

통해 ‘부산학프로그램 최적화 및 학문적 체계화 기초와 중장기 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부산학운영협의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2014-2015년 중구문화해설사 양성과정 1기 수료자 중 3명이 2017년 중구문화해설사 양성과정(24차시) 학습자 50여명을 분반해 프로그램 활동을 촉진하였다. 한편, 2002년 4월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소안(素眼) 최성연(崔聖淵 1914-2000년)이 생전에 수집한 인천 근대 건축물 사진(960여점), 오례당 전경 등의 사진(780점), 신문기사 스크랩, 시조집 등 도서 840권, 기타 유품과 ‘개항과 양관역정’의 원자료를 부인 김숙양 여사로부터 기증받았다. 또 원로 언론인 박근원 기자는 인화사진 3,000점과 골목길을 기록한 저작권을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처럼 지역자료를 발간한 저자 자료 공유, 발굴·소장한 자료 기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소통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조성의 경우, 부산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동아리, 지역단체 등의 모임, 취미활동, 행사를 위한 도서관 시설·공간을 제공하였다. 2014-2018년에 〈표

11〉처럼 지역사회 관심사, 지역문제 등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졌으며, 2018년에 중앙도서관은 ‘부산학아카데미 IV’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산학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 ‘부산학운영협의회’ 중심의 지역전문가 인력풀은 지역 연대감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재능기부, 기증 등의 문화로 확산되었다.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SNS를 통해 도서관 사업을 홍보하였고, 〈표 12〉와 같이 지역사회 이슈를 가지고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 전문가 등과 소통하였다. 이어 ‘향토역사연구 위한 전문가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역사 연구, 해제 및 고증 활동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기관 간 협력(협업) 확대의 경우, 부산 중앙도서관은 2005년부터 지역기관(중구, 동구, 영도구 18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교류하다가 2014년부터 ‘원도심문화네트워크축전’을 열고 있다. 2017년에는 40계단문화관 주최 ‘육이오 한국전쟁 특별전시’에 원도심문화네트워크기관 전체가 참여하였는데, 도서관은 한국전쟁 관련도서 제공하였다. 인천 화

〈표 11〉 부산 중앙도서관의 지역전문가 인력풀 구축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교수	연구원(소)	지역연구가	문화예술	해설사 및 기타	비고
2015	중구문화해설사 양성 전문과정	4	1	2	2	3	2015-2018 중구문화해설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2015 8회, 2016 24회, 2017 12회, 2018 23회)
	또따또가와 함께하는 부산문화예술의 오감도 (도시재생) 찾아가는 교육, 마을만들기와 通하다	2	-	-	10	13	
		1	1	-	2	11	
2016	부산학 아카데미 I	6	1	3	1	1	
	부산학 아카데미 II	2	2	-	-	-	
2017	중구문화해설사 2기 양성과정	7	2	6	5	4	
	부산학아카데미 III	6	-	3	-	-	
2018	교육사랑아카데미[부산의 재발견과 인문학]	11	-	-	4	1	
	부산학아카데미 IV	3	-	2	1	-	
계		42	7	16	25	33	

〈표 12〉 인천 화도진도서관의 지역전문가 인력풀 구축 현황

연도	프로그램명	교수	연구원(소)	지역연구가	문화예술	언론
2009	인천학 시민강좌	5	2	2	5	3
2011	[인천학 시민강좌] 인천, 영화로 읽다	-	-	-	2	-
2016	[인천학 시민강좌] 열려있는 땅, 인천	1	-	-	7	2
2017	[인천학 시민강좌] 인천의 시간과 공간을 담은 여섯가지 이야기	1	-	-	3	2
	[인천학 시민강좌] 한국과 중국의 가교, 인천	5	-	-	-	-
2018	[인천학 시민강좌] 인천 섬의 인문·자연자리	-	1	2	5	-
	[인천학 시민강좌] 인천의 근대 '시간과 공간의 축'	3	-	-	-	-
계		15	3	4	22	7

도진도서관은 박물관,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및 중국학술원 등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서 및 정보를 공유하고 전시, 자료 편찬, 문화콘텐츠 제작,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개관 30주년인 2018년에 인천시립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와 공동으로 기획·전시한 ‘자료로 본 인천의 근현대’는 많은 시민과 관계 공무원이 관람하여 지역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 최초로 도서관이 지역사 연구 자료의 수집, 연구, 전시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3.3 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 전략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평생학습 산실, 문화향유 거점,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실히 지식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동시에 후대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기반 위에서 문화와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 이해 및 지역문제

를 논의하는 구심체가 될 때 제3의 장소 내지 사회적 장소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도서관이 개항도시 부산의 중앙도서관과 인천의 화도진도서관이다. 양자는 도서관이 지역 경제 발전,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모든 도서관이 울타리 안의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역민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 자주적 학습과 문화향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소통과 논의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장소로 확장될 때 지역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도서관이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려면 지역 소급자료 발굴과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서비스를 강화해야 도서관 기반의 지역형 일자리 창출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형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도서관의 외연이 사회로 확장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이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에 기여하는 차원을 넘어 선도하려면 향토자료의 적극적 개발을 전제로 지역 연구자 및 기관·단체와 공유하는 동시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콘텐츠를 발굴·복원하고 재생하는 주역은 교수, 연구자, 향토 학자, 작가 등 학술연구 및 문예창작 집단이다. 도서관이 콘텐츠를 창출하는 집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할 때 역사와

기억의 복원, 사료출판과 전시, 학습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지역문화 재생과 확산을 주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미술관, 박물관, 기록관 등과의 전략적 제휴와 협업도 중요하다. 인터넷, 디지털, 모바일이 대세가 될 미래에는 지역단위 GLAM(Gallery+Library+Museum+Archive) 협의체 구성 및 포털사이트 운영도 고민해야 한다. 저마다의 울타리를 초월하는 인식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지역문화의 풍요와 개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더욱 기여하려면 사회적 장소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 취업과 창업, 건강과 복지, 웨빙과 웨다잉 등 일상적 소통에서 지역 대화, 독서토론, 지역탐구, 지역현안의 공론화, 마을만들기 등 전문적 활동에 필요한 지식 정보, 프로그램, 개방형 공간과 시설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소통은 공감과 신뢰를 창출하며 양자가 전제될 때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행과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개방형 출입구, 정숙한 분위기, 독서실을 방불케 하는 칸막이 일반열람실, 음식물 반입금지, 장서중심의 공간 구성, 소규모 세미나·토론실 부재 등을 방지한 채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제3의 장소'라고 주장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지역주민이 도서관의 장서보다 인터넷에 더 의존하고, 휴대폰에 더 기대며, 커피숍에서의 대화와 지적 작업을 선호하는 행태를 외면한 채 도서관을 '사회적 장소'로 규정한다면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도서관이 가치중립적 기관, 지방공공체, 지적 놀이터, 개방형 공간, 아고라·광장으로 변신할 때 지역공동체 형성의 인큐베이터와 베이스캠프로 인식될 수 있다.

넷째, 도서관이 포괄적 합의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논증하려면 지역경제 발전,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 지역공동체 형성 외에 역사자리, 건축예술, 인식가치, 이용가치를 반영해야 완전체가 될 수 있다. 가령 부산의 중앙도서관과 인천의 화도진도서관은 도시 공원에 위치함으로써 역사자리적 명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의 건축적 및 공간적 예술미는 공시적 부존자원적 가치를 높이고 탐방객 증가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시쳇말로 '도서관이 있어 행복하다'는 인식적 가치는 애향심과 자긍심의 모멘텀이다. 지역주민의 도서관 및 자료이용을 통한 지식정보 습득, 독서력 증대, 여가활용, 취업역량 제고 등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방공공재 및 지식문화 자산인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와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요약 및 결론

1980년 영국 사회학자 로버트슨(R. Robertson)은 세방화(glocalization)를 제안하였다. 이 신조어는 '세계화+지방화'로 '생각은 글로벌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지방화가 국제화이고 국제화가 지방화라는 것이다. 글로벌 사고와 지역적 행위의 결과가 지역발전을 통한 대외적 경쟁력 확보이다.

그렇다면 지역을 발전시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경제활동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이듯이 지역발전 주체도 개인과 가정, 기관과 단체, 사회와 정부이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

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과 단체는 도서관 이용자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지방정부와 국가는 도서관 정책 및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이를 행위주체인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지역경제 발전,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 지역공동체 형성, 역사자리 명소와 관광, 건축예술적 조형미와 부존자원화,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도서관 이용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등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개항도시 부산의 중앙도서관과 인천의 화도진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논증하였다.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도서관의 직원 채용에 따른 직접적 고용효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강사 활용, 자료구입에 따른 서점 등의 매출 증가, 이용자 및 방문자 증가로 인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매출 증가 외 지역 저자·출판계·기관과의 제휴, 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용문 및 지역형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및 타지인 방문으로 지역관광 활력에서, 지역문화 재생 및 진작은 향토자료 특성화 및 지역자료 출판을 통한 지식문화 확산, 지역연구 지원, 도시재생 협력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은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 소통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조성, 지역기관 간 협력(협업) 확대에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문화적, 지역공동체 형성의 측면에서 논증한 공공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는 완전체가 될 수 없다. 도서관 자체의 역사자리 및 건축예술 측면, 지역주민의 인식 및 이용가치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모든 도서관의 배후적 공간은 지역사회, 장소적 상징은 문화·학습시설, 서비스 대상은 지역주민과 기

관·단체, 배타적 정체성의 요체는 책 중심의 방대한 지식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지역발전 기여에는 기억과 복원, 사회적 역

할과 기능, 주체의 인식 및 이용가치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들의 지표 및 척도를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경희. 2015.『공공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협업에 대한 인식도 분석: 부산지역 협업주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2] 문은미. 2017.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도서관 계획 특성 연구.『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5): 143-151.
- [3] 신승수, 홍지학, 김광현. 2009. 영국 공공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12): 259-268.
- [4] 양재영, 김동훈. 2016. 도시재생 기법을 도입한 공공도서관 계획에 관한 연구: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구 제주대학병원 리모델링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6(1): 151-154.
- [5] 여진원, 장우권. 2016. 도시기록화 사례연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립동의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로.『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387-416.
- [6] 윤영섭. 2012.『정독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북촌의 관계회복: 도시적 맥락 속에서 바라본 북촌(北村)과 정독도서관의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7] 윤희윤. 2015.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20.
- [8] 윤희윤, 김경희. 2019.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지역발전기여.『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29-48.
- [9] 이미경. 2014.『아메리칸 르네상스(American Renaissance) 벽화: 보스턴 공공도서관 벽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 [10] 이정호. 2011.『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문헌 정보학과.
- [11] 차미경. 2003.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의 계획.『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1): 159-171.
- [12] 허준영, 김용승. 2015.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공공도서관.『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51-452.
- [13] Marino, Mina Di and Kimmo Lapintie. 2015. "Libraries as Transitory Workspaces and Spatial

- Incubator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7(2): 118-129.
- [14] Rasmussen, C. H., Jochumsen, H. and Skot-Hansen, D. 2010.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urban development and culture-led regeneration.” [online] [cited 2017. 3. 3.]
<https://static-curis.ku.dk/portal/files/47042522/Oslo_paper_chr_hjo_dsh.doc>
- [15] Stilwell, Christine, Lara Skelly and Peter G. Underwood. 2015. “Correlations between the economy and public library use.” *Bottom Line: Managing Library Finances*, 28 Issue 1/2: 26-33.
- [16] 釜山甲寅會. 1916(大正5). 『日鮮通交史』. 釜山: 釜山甲寅會.
- [17] 足立四郎吉. 1906(明治39). 『日本弘道會要覽』. 東京: 日本弘道會.
- [18] 仁川府. 1933(昭和8). 『仁川府史』. 京城: 仁川府.
- [19] 朝鮮總督府. 1911-1942(明治44-昭和17). 『朝鮮總督府統計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 [20] 統監府. 1907-1910(明治40-43). 『第一-三次 統監府統計年報』. 東京: 統監府.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Gyoung Hee. 2015. *A Study on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Lifelong Learning Program Collaboration: Focus on Collaboration Subject in Busan*. M.A. thesis, Daegu University.
- [2] Moon, Eun-Mi. 2017. “An Analysis of the Design of Public Libraries in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6(5): 143-151.
- [3] Shin, Seung Soo, Hong, Ji Hak and Kim, Kwang Hyun. 2009. “A Study on Realization of Publicness based on Communities through Looking into the British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5(12): 259-268.
- [4] Yang, Jae-Young and Kim, Dong-Hoon. 2016. “A Study on Public library Plans in the Old Downtown to Introduce an Urban Regeneration Scheme: Orienter Towards the Jeju Old University Hospital Remodeling in the Old Jeju Downtown.”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6(1): 151-154.
- [5] Yeo, Jin-Won and Chang, Woo-Kwon. 2016. “A Case Study on the Urban Documentation: Centers on the modern missionary of Yangrim-dong area in Nam-gu, Gwangju.”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387-416.
- [6] Yoon, Yeong seop. 2012. *Through Remodeling of Jeongdok Library Relationship Recovery of Buckchon*. M.A. thesis, Hongik University.
- [7] Yoon, Hee Yoon. 2015. “The Contribution Strategy of Public Library Local Cultural Development

-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1-20.
- [8] Yoon, Hee Yoon and Kim, Gyoung Hee. 2019. "Contribution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 Public Library to Local Development: Focused on Cases of Bus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2): 29-48.
- [9] Rhi, Mi-Kyung. 2014. *American Renaissance Murals: Focused on the Murals of Boston public library*. Ph. D. dis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10] Lee, Jeong-Ho. 2011.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y*. Ph. D. diss., Sungkyunkwan University.
- [11] Cha, Mi-Kyeong. 2003. "The Contribution Strategy of Public Library Local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4(1): 159-171.
- [12] Heo, Jun Young and Kim, Yong Seung. 2015. "The Public Library for Local Revitalization Strategy: Focus on London Borough of Tower Hamlets'Idea Store."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51-452.

